

# “그림 감상하며 백신접종 긴장감 풀어요”

### 무안군 백신예방접종센터 2곳 전남문화재단 ‘모두의 미술’ 전 11월30일까지 작품 12점 전시



무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남악 주민다목적 생활체육관에서 전남문화재단이 기획한 ‘모두의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

지난 봄, 미국 뉴욕의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에서 잔잔히 울려 퍼진 바흐의 ‘무반주첼로 모음곡1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연주를 했던 이가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라는 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무안군 백신 예방 접종센터가 작은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백신 접종자와 의료진들의 긴장과 피로를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된 ‘모두의 미술’전은 전남문화재단이 기획했다.

오는 11월30일까지 계속되는 전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남악 주민다목적 생활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시작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남도예술은행 소장품과 코로나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작가들을 위한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에 선정된 작가 작품으로 구성됐다. 작품을 임대해 준 작가들에게는 소정의 작품 임대료가 지급된다.

전시 공간이 넓은 점을 감안해, 50호 이상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는 풍경화 위주로 구성했다.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는 남도의 소박한 풍경을 한국화로 풀어낸 박동근의 ‘고하도’, 광창주의 ‘다도해 일우’를 비롯해 푸른 숲속의 모습을 묘사한 김동아의 ‘소소한 풍경’, 박수근의 ‘영산강의 봄’ 등 17점이 전시됐다.

남악 주민 다목적 실내체육관에는 남도 바닷가 풍경을 묘사한 강영자의 ‘바닷가 사람들’, 목포 유달산 아래 동네 풍경을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낸 정운태의 ‘다순구미 동네 이야기’ 등 12점이 내걸렸다.

재단은 지난 5월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전시지원

신청을 받아 전시장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의 전시’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에도 지친 의료진과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9월 화순 전남대 병원 로비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시간’ 전에는 강근선·김미숙·서지영·정재 작가의 작품 24점이 전시됐으며 컬러링북 형태의 도록을 제작, 의료진과 입원 환자들에게 색연필과 함께 선물로 제공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봉사활동하며 자격증 취득... 행복·뿌듯함 두배”

### 광주중앙도서관 장영라 씨 미용사면허증 등 12종 취득



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아껴 모은 돈으로 명절 때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생필품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장씨는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직장 과 봉사활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따는데 애써왔다.

이렇게 해서 만 자격증만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천체지도사, 미용사면허증, 카페바리스타2급 등 무려 12종으로 노력까지 신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로 시작된 장씨의 이러한 도전은 ‘협재진행형’이다.

장씨는 현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게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또다른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봉사는 남을 위한 배려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원 봉사활동하는 와중에도 미래를 위해 꾸준히 자격증에 도전하는 부지런한 일꾼(교육공무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중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영라(59·사진)씨. 평소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진 장씨는 광주 광산구 덕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이들이 지루한 일과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동기구와 위문품을 선물하는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장씨의 선행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좋은 일은 알리고 퍼뜨려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세간에 알려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장씨의 선행은 자신의 몸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이어온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자비를 갖고 있는 장씨는 이에 굴하지 않

배우 차인표, 경일대 K컬처엔터테인먼트학부 교수로

배우 차인표가 대학 강단에 선다.

27일 경일대와 방송가에 따르면 경일대는 최근 K-컬처엔터테인먼트 학부를 신설하고 원조 한류스타인 차인표를 다음 해부터 전임 교수로 초빙한다.

차인표는 연기자로서는 물론 작가, 연출자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소설 ‘잘가요 언덕’, ‘오늘은’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 ‘용알’을 연출하고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작가 데뷔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일대 K-컬처엔터테인먼트 학부는 다음 해부터 엔터테인먼트 전공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영화·드라마 전공으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대형 실습센터 설립하고 3학년부 2년 동안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또 뉴욕 필름 아카데미와 제휴해 1년 동안 해외에서 공부한 뒤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미국 서부 명문대와 함께 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도 계획 중이다.

차인표는 “서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중문화 교육에서 소외된 지방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바둑 영재’ 문민중, 정상급 여자 프로기사 상대 초유의 5연승

‘월성부름 떡잎’으로 불리던 문민중(18·사진) 4단이 정상급 여자 프로기사들을 상대로 초유의 5연승을 거뒀다.

문민중은 26일 막 내린 ‘2021 합천 역대 영재 vs 여자 정상 연승대전’ 최종국에서 오유진 7단에게 169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하천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7회와 9회 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했던 문민중은 아직 10대 소년 기사이지만 한국 여자바둑 랭킹 2위인 오유진을 상대로 줄곧 우세를 지키며 완승을 거뒀다.

‘역대 영재’ 팀의 세 번째 주자인 문민중은 이날 승



리로 여자 정상급 기사들을 상대로 파죽의 5연승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긴 기사가 계속 두는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역대 영재 vs 여자 정상’ 대회에서 5연승을 거둔 선수는 문민중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 ‘여자 정상’ 팀은 첫 번째 주자인 조승아 3단이 역대 영재 팀의 이연 3단과 현유빈 4단을 연속 제압해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역대 영재’ 팀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문민중

이 조승아의 기세를 꺾은 뒤 오정아 5단, 김혜민 9단, 김재영 6단을 차례로 물리친 데 이어 최종 주자 오유진마저 꺾은 것이다.

2017년 2월 제8회 영재입단대회를 통해 프로 데뷔한 문민중은 지난해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인 ‘제7회 글로벌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중국 기사들을 잇달아 꺾고 우승을 차지해 시선을 끌었다.

지난 연말 최우수 남자신인상도 수상한 그는 올해 ‘미래의별 최강 영재전’ 우승에 이어 하천석배에서도 두 번째 정상에 오르며 명실공히 최강의 신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올림픽 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50 2020 도쿄올림픽 <양궁/펜싱/수영/유도>	35 아모르파티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도쿄 <양궁/펜싱>		10 SBS 도쿄올림픽 <양궁/펜싱/유도/수영>
10	0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탁구, 사이클, 서핑, 조정>			
11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탁구, 사이클>	00 여기는 도쿄 <유도/펜싱>	00 2020 도쿄올림픽 <양궁/펜싱/수영/유도>	
13				30 SBS 도쿄올림픽 <펜싱/유도>
14	00 2020 도쿄올림픽 <농구, 사이클>			
15		00 KBS 뉴스타임 10 여기는 도쿄 <탁구/양궁>	00 2020 도쿄올림픽 특집 뉴스 외전 40 2020 도쿄올림픽	
16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2020 도쿄올림픽 슈퍼매치 <축구남자예선/양궁/유도/펜싱/수영>	
17	10 2020 도쿄올림픽 <유도, 배드민턴, 탁구>	00 여기는 도쿄 <축구>		00 SBS 도쿄올림픽 <남자축구/펜싱/유도/수영>
18				
1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20 2020 도쿄올림픽 <수영, 배드민턴, 탁구>	30 여기는 도쿄 <펜싱/수영>	10 2020 도쿄올림픽 슈퍼매치 <축구남자예선/양궁/유도/펜싱/수영>	
20				
2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랜선 장터	30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45 KBC 8 뉴스
22	00 특집 다큐 그 섬에 살고 싶다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표리부동	00 검은태양 : 데이브레이크 20 라디오스타	00 백종원의 골목식당
23				
24	1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50 스튜디오 K		40 도쿄 투나잇
25				
26		15 신상출시 펀스토링(재)	00 오마이싱어 50 미치지 않고서(재)	40 닥터 365 45 열린 TV 시청자세상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5 머털도사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한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다시 인생, 죽기 전에 꼭 한번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	15:15 클래스 e	<남미, 취향 저격 가이드북 -아상의 땅, 브라질>
08:30 출몰! 슈퍼핑크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우리 여름을 살기로 했다 3부 여름 보물섬, 만재도>
09:00 시공	16:00 마사와 꿈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개구쟁이 조이	22:45 세계의 대자연
09:30 우당탕탕 아이쿠	16:30 땡땡땡 유치원(재)	23:35 클래스 e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음 6월 19일 丁丑)**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48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60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72년생 일방적이거나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84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96년생 집안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32, 60</p>	<p><b>午</b></p> <p>42년생 팔이 들어 굽지 내 굽지는 않는 법이다. 54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알아듣는다. 66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78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90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02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20, 77</p>
<p><b>丑</b></p> <p>37년생 목적에 부합하는 구상과 행보만이 성사에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49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61년생 재미있게 되어가는 형세로다. 73년생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85년생 준수해야 할 것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97년생 자음이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09, 99</p>	<p><b>未</b></p> <p>43년생 드디어 확실하게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55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니라. 67년생 외형만 드러내도 의미는 충분하다. 79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 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 91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03년생 중박 된다면 공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3, 56</p>
<p><b>寅</b></p> <p>38년생 으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50년생 목전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일단 임하고 불일이다. 62년생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절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86년생 국제가 마음과 감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98년생 각각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15, 64</p>	<p><b>申</b></p> <p>32년생 실용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4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6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68년생 용도를 달리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80년생 부가적인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겠다. 92년생 객관적으로 돌아켜 보아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5, 59</p>
<p><b>卯</b></p> <p>39년생 높은 산에 올라 각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51년생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하리라. 63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75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87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치가 결실을 낳으리라. 99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지리라. 행운의 숫자 : 18, 50</p>	<p><b>酉</b></p> <p>33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45년생 차리니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57년생 눈앞에 다 가고 있으니 면역할 길을 찾는다. 69년생 예상치 보다는 못 미치니 도움은 될 것이다. 81년생 즐기면서 임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93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78</p>
<p><b>辰</b></p> <p>40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52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64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 하느니라. 76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낫다. 88년생 알고 고도 속아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00년생 복잡한 이해관계가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4, 71</p>	<p><b>戌</b></p> <p>34년생 삼가지 않으면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다. 46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58년생 인위적으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로다. 70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 산적이다. 82년생 대체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94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감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국면이니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03, 61</p>
<p><b>巳</b></p> <p>41년생 재물이 왕성해 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53년생 방심하다가가는 역장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조정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상을 예견한 셈이다. 77년생 천신만고 끝에 남공불락을 점령하는 이치다. 89년생 경쟁력 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01년생 활로를 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62</p>	<p><b>亥</b></p> <p>35년생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47년생 평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뜻 깊은 날이다. 59년생 행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71년생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꼭 잡아라. 83년생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95년생 인신한즉시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19, 74</p>